

호남대, AI 융합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260억원 투입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AI융합인재양성과 시스템 구축에 260억원을 투입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AI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호남대는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된 2018년부터 AI특성화대학의 비전을 세우고 AI교육시스템 구축 20억원, AI강의실과 실습실 등 교육환경 구축 16억원, AI관련 학과 기자재 확충 12억원, AI장학금 5억원, AI전담 교직원 초빙 등 모두 62억여원을 투입해 AI캠퍼스구축과 인재양성 기반을 다져 왔다.

또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이 15학점 이상의 AI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마치고, 이를 뒷받침할 12개의 AI전용 강의실과 노트북, 전자교탁 등 최첨단 교육시설과 장비가 구비된 AI캠퍼스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AI기초프로그래밍과 딥러닝 기본교육, 영상인지, 음성인지, 언어인지,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기술 등을 구현해 보는 AI교육센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

AI캠퍼스 구축·AI교육센터 등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 198억 추가지원... 국내 최고 AI특성화대학 자리매김

체 재직자 등 시민들의 AI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차세대 와이파이존(Wi-Fi 6) '호이파이' (호남대+와이파이)를 구축해 캠퍼스 전역에서 학생들이 휴대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데이터요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남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의 '드림 2028'이 완성되는 2028년까지 전교생 AI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AI장학금 48억원을 비롯, AI시스템 확충 40억원, AI강의실과 실습실 등 교육환경 구축 40억여원, AI관련학과 기자재 30억여원, AI전담 교직원 확충 등 모두 198억원을 AI융합교육에 투입해 국내 최고의 AI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호남대는 최근 이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AI인재양성과 시스템 구축에 힘입어 국내 최고권위의 '2020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대학-AI(인공지능) 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

끌어갈 국내 최고의 대학임을 공인받은 바 있다.

호남대는 그동안 지방대학 특성화(CK-1), 프라임(PRIME), 링크플러스(LINC+),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사립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10여년 동안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하와 코로나19 등으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학생들을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해 나갈 '넥스트 챔피언'으로 양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집중 투자를 결정했다"며 "정부의 'AI국가전략'과 광주광역시 'AI중심도시'에 발맞춰 AI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창업은 물론,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AI교육센터는 AI기초프로그래밍과 딥러닝 기본교육, 영상인지·음성인지, 언어인지,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 등 시민들의 AI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호남대 제공)

동강대 '창업 A부터 Z까지' 예비CEO 교육



창업지원단, 예비창업자 교육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예비 CEO들의 창업 준비를 돕는다. 동강대 창업지원단(단장 박경우)은 지난 14일부터 산학협력관 회의실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 창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오는 25일까지 2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예비 CEO에게 창업 기초 지식과 창업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창업 관련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

창업기초지식 ▲사업계획서 실무 ▲기업가 정신 ▲기업 브랜딩 이해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아이템 사업성 분석 ▲성공사례 분석 및 멘토링 ▲재무제표 ▲지식재산권 ▲제품 마케팅과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매장구멍 및 재고 관리 ▲IR 피치덱(Pitch deck: 투자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파워포인트) 등을 교육하고 있다.

박경우 창업지원단장은 "동강대가 보유한 창업 노하우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꿈을 이루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용연학교, 5高街Go '코로나 마블'



23·24·28일 교내에서 코로나19 방역 미션 수행

"마음도 오고가고, 생각도 오고가고, 바이러스는 막아볼고" 광주교육청의 Wee스쿨인 용연학교가 23·24·28일 2020학년도 오고가고(5高街Go)프로젝트 '코로나 마블'을 진행한다. (사진) 이 프로젝트는 '오감을 높여 거리로 나가보자'는 의미로 '학교 밖 체험'으로 계획됐지만,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돼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등 사

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친숙한 RPG(Role-Playing Game)와 보드게임(Board Game)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인 '코로나 마블'에서 참가 학생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침 관련 미션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실질적인 코로나19 대처법을 체험하게 된다.

프로젝트는 1단계(23일) '코로나19 바로알기' (사전수업), 2단계(24일) '코로나 마블' (활동), 3단계(28일) '마음방역' (사후수업)으로 구성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9월 모평 가채점...정시 지원가능 대학 파악 대학별고사 일정·중복 여부 꼭 체크해야

수시 지원 최종 점검

마지막 실전 시험인 9월 모의평가를 마친 고3 학생들은 이제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다. 23일부터 2021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원서 접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9월 수능 모의평가가 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수시 지원 전략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수시 지원 최종 점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수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수시 6회+정시 3회' 등 총 9번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시를 바라보는 선에서 수시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수시 지원의 일차적 판단 기준은 내신이 아니라 수능 성적 가능 지표인 '모의고사 성적'이어야 한다.

9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예상 백분위와 표준점수, 등급 등의 지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상위 누적 백분위를 도출하자.

상위 누적 백분위를 도출했다면, 그 성적에 따라 9월 모의평가 응시 이전 설정해두었던 자신의 지원 희망 대학 리스트에서 실제 수시 지원을 고려중인 대학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시 지원 가능 대학들을 토대로 수시 지원의 하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6회의 최종 수시 지원 카드를 확정하기 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이 종료되는 시점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지원 자체가 금지되므로, 수능 이전에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전형은 최대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수능 이전에 대학별고사를 비롯한 모든 단계가 끝나는 전형은 만약 해당 대학에 합격할 경우 정시 기회를 활용할 수 없음을 명심하자.

특히 자신의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전형이 수능 전, 후로 언제 마무리되는지 확인해 자신의 수시 지원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